

버스 정류장 불법주차 '몸살'

광주, 11일째 견인업무 마비...스티커만 발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착에 차질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 환승을 하게 하는 대신 배차간격은 줄여 차량운행을 빠르게 하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이 연초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버스 승강장 주변과 간선도로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견인업무마저 마비(본보 1월 11일자 7면)됐기 때문이다.

11일 오후 2시 광주시 남구 봉선동 봉선치안센터~계석초교 왕복 1차선 도로. 도로 양쪽에 즐비하게 늘어선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통행하는 차량은 아슬아슬 곡예 운전 펼쳐야 했다. 대부분의 차량이 사이드미러를 접어야 간신히 진행할 수 있

었고, 한쪽에서 진입을 시도하면 반대편 차량은 정차해야만 했다.

서구 매월동 공구단지 앞 도로도 양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해야 했다. 버스 기사들은 운행이 지체되자 배차업무마저 마비(본보 1월 11일자 7면)됐기 때문이다.

버스 승강장 인근 '레드존'도 유명 무실했다. '레드존'을 가득 덮은 차량으로 인해 버스는 승강장에서 2~3m 떨어진 도로에서 승객들을 내려줬고, 승객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이리저리 종종걸음을 치는 곡예 보행을 해야만 했다. 남구 백운교차

로 인근에는 '불법 주차차 단속'을 2006년 10월 1일부터 연중 실시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 하지만 건너편 도로에는 수 십대의 불법 주차차량이 장사진을 이뤘다.

이처럼 광주시내 도로 대부분이 대형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큰 혼잡을 겪었지만, 견인 작업은 11일 오전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주시도시공사가 다음달 말까지 일선 자치구에 불법 주차차 견인 업무를 이관기로 하면서 동·남·북구의 견인보관소를 폐쇄하자, 일선 자치구가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해 버스 승강장 주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10일까지 모두 1천778개의 불법

주차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했지만, 견인은 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11일 오후에야 '불법 주차차 특별 단속대책'을 발표하고, 견인 업무를 재개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모(60·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좁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배차시간을 맞추기가 무척 어려웠다"면서 "시간이 쫓겨 짐을 거르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기모(50·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특히 상가나 재래시장 인근에 불법 주차차량이 많아 교통 흐름이 크게 차질을 빚었다"면서 "출·퇴근 시간은 러시아워를 넘어 교통지옥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11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신한은행 앞 승강장에서 시내버스가 죽 늘어선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승객을 도로에 내려주고 있다. 올해 초부터 광주시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견인업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건설사 대표 괴한에 피습

남구 봉선동 아파트 입구서 4명이 집단폭행

광주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괴한들에 폭행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에 광주 남구 봉

선동 모 아파트 입구에서 광주 모 건설 대표 A(53)씨와 운전기사 B(40)씨가 괴한 4명에게 집단 폭행당했다. A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으나 폭

행을 저지하던 B씨는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A씨는 귀가하는 중이었으며 A씨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야구방망이와 각목 등을 든 괴한들이 갑자기 나타나 폭행하다 B씨의 저지로 1분여만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용의자들의 인상착의와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21에는 광주 모 중견건설업체 대표가 괴한들에 납치됐다 6시간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애학생 머리에 물 붓고 신발 벗어 뺨 때리기까지

목포 특수학교장 인권유린 파문 확산

목포 장애아 특수학교 교장의 교사 폭행사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 모 학교장 교사폭행 및 인권탄압 범시민대책위'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 뿐 아니라 학생도 폭행한 A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학부모, 교사 등을 상대로 추가 사례를 수집한 결과 A교장은 지난달 22일 학교 안에서 교사의 뺨을 때린 것 외에도 수년간 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충격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A교장이 2003년 울면서 "특히 상가나 재래시장 인근에 불법 주차차량이 많아 교통 흐름이 크게 차질을 빚었다"면서 "출·퇴근 시간은 러시아워를 넘어 교통지옥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생의 뺨을 슬리퍼로 때린 사례 등을 나열했다.

이 학교법인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A교장에 대해 3개월간 직위해제를 결정했으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를 의결할 방침이다.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책위에서 제시한 녹음 테이프 등으로 확인한 결과 지난달 22일 A교장이 교사의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고 A교장도 이 부분은 인정하지만 추가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진상을 정확히 밝혀 사실일 경우 A교장을 엄중처벌하도록 법인 측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광주지법, 인화학교 범인 자정노력 인정

광주지법 행정부(부장관사 선재성)는 11일 광주 인화학교 사회복지법인의 우석학원이 '임원해임 명령이 부당하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광산구의 해임명령을 받아들임에 따라 각하결정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우석법인이 광산구의 해임명령을 받아들임으로써 소송을 진행할 의미가 없다"며 "이번 소송은 해임명령이 적당하

를 판단하는 소송인데 원고가 광산구가 해임한 6명의 이사를 모두 해임 및 교체했기에 본안 소송을 진행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찬동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이사가들이 이사회에 들어가야 한다"며 "공익이사 선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 부모도 배상해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과 그 부모가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부모에게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중학생 시절 J군(20) 등 고교생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K양(18)과 K양의 부모가 가해자와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K양

에게 4천만원, 부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K양은 성폭행을 당해 자살 위기, 대인기피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부모도 K양이 정신적 장애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서 고통받고 있으므로 가해자 3명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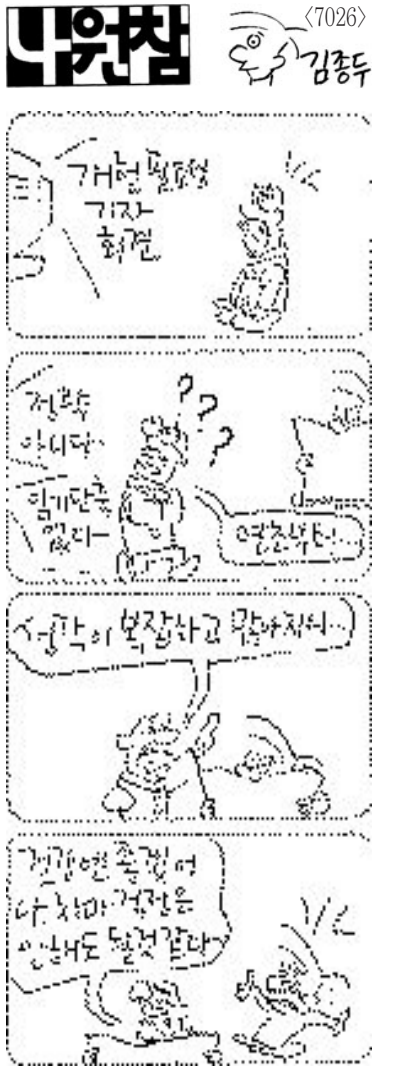
/연합뉴스

제이유그룹 주주대회장 무기징역 구형

다단계제체를 통한 사기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주도(51) 회장에 11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이유그룹 임원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주 회장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이유그룹 윤도 상임정책위원장과 오모 상임정책위원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시민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636 회대단지!
 (광안동 4·6·8·10·12·14·16·18·20·22·24·26·28·30·32·34·36·38·40·42·44·46·48·50·52·54·56·58·60·62·64·66·68·70·72·74·76·78·80·82·84·86·88·90·92·94·96·98·100)
 수권선도시 피오레
 문의: 062-367-9000

집시범 위반 4명 조사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주공 광주·전남본부 앞에서 재개발 토지보상금을 더 달라며 불법 집회를 한 김모(여·60)씨 등 4명을 11일 불법아 조사 중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전화 예절 지켜라" 주먹 휘둘러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식당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옆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질 끝에 경찰서행.

○~11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3)씨는 지난 8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모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했고, 밥값을 계산하던 오모(36)씨 등 2명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경찰에서 김씨는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한 반면, 오씨 등은 "이빨에 금이 갔다"고 큰소리.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호기심 가득한 눈이 모이는 곳!
호기심 가득한 손을 기다리는 곳!
- 2007 동물아카데미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후원: 광주광역시,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광주광역시교육청, 후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후원: 광주광역시교육청

문의: 062-367-9000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후원: 광주광역시,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광주광역시교육청, 후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후원: 광주광역시교육청